

IEUM · BEAUTY INTELLIGENCE

Aesthetics & *Cosmeceutical* Monthly

스킨케어 · 코스메슈티컬 · 메디컬 에스테틱 · K-뷰티

제2호 · 2026년 10월호 수집 기간 2026년 9월 16일~10월 15일 2026년 10월 20일 발행

Prepared by IEUM Value Creator

01 경영진 레이더

02 규제·표시광고 위치

03 원료·과학 브리프

04 메디컬 에스테틱 업데이트

05 딜·자본·기업

06 시장·채널 시그널

07 마케팅 플레이북

★ 스포트라이트

08 IEUM 코멘터리

09 면책 및 출처

01 경영진 레이더

이달 사업계획을 바꿀 신호 다섯 가지

갈더마, 'ZO 스킨헬스' 15억달러에 인수... 병의원 스킨케어 몸값 기준 다시 썼다

2026-10-14

US/GLOBAL

COSMETIC

R&D·마케팅

갈더마가 미국 병의원 전용 스킨케어 브랜드 ZO 스킨헬스(ZO Skin Health) 지분 100%를 기업가치 (EV) 15억달러, 전액 현금으로 인수한다. ZO의 최근 12개월(2026년 6월 기준) 순매출은 약 3억3000만달러로, 매출 대비 약 4.5배(IEUM 추산)다. 제품 40여종을 피부과·메디스파·온라인 등 1만6500여개 거래처에 공급한다. 갈더마는 인수 첫째 핵심 EPS 중립, 2027년 EBITDA 마진 소폭 희석을 제시했으며 거래는 4분기 또는 내년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9월 보도에서 블랙스톤 희망가는 20억달러 안팎으로 알려졌다.

IEUM의 시각 — 주사제 대기업이 '시술 전후 데일리 루틴' 매출을 사들이는 흐름이다. 병의원 채널에서 규모를 갖춘 코스메슈티컬 브랜드에 전략적 인수자의 가격 기준점이 생겼다.

K-뷰티 수출 3분기 누적 111억달러 '역대 최대'... 미국 비중 21%

2026-10-02

KOREA

COSMETIC

R&D·마케팅

식약처 집계 결과 올해 1~9월 화장품 수출은 111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1.1% 늘어 지난해 연간 실적의 97%에 이미 도달했다. 미국이 23억5000만달러(40.6% 증가, 비중 21.1%)로 1위에 올랐고 중국 15억8000만달러, 일본 8억9000만달러(언론 보도 기준 각 0.4%, 8.6% 증가)가 뒤를 이었다. 기초화장품이 87억2000만달러로 27억1000만달러 늘며 성장을 이끈 반면 색조는 소폭 줄었다. 산업통상부 월간 집계로는 9월 한 달 수출이 처음으로 15억달러를 넘어섰다.

IEUM의 시각 — 성장은 기초화장품과 미국이 전담하고 중국은 제자리다. 내년 사업계획의 병목은 수요가 아니라 생산능력, 미국 유통망, MoCRA 대응이다.

출처 [2] [3] [50]

'재생' 마케팅에 칼 빼든 한국... ECM 스킨부스터·PDRN 광고·유사품 한꺼번에 도마 위

2026-10-13

KOREA

MIXED

R&D·마케팅

국정감사에서 식약처는 인체조직으로 유통되는 동종진피 유래 ECM 스킨부스터의 '최소조작' 기준을 손질하고, AI로 만든 가짜 의사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며, 화장품 책임판매업자의 광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추석 전 온라인 점검에서는 PDRN 제품의 '재생' 표현이 적발 대상으로 지목됐고, 서울중앙지법은 리쥬란 유사품에 판매·광고 중지 가처분을 내렸다. 이번 호 스포트라이트에서 자세히 다룬다.

IEUM의 시각 — 국내 클리닉에서 가장 빠르게 크던 주사 카테고리에 재분류 리스크가 생겼다. 지금 가장 싼 보험은 표시·광고 문구 정비다.

출처 [7] [8] [10] [13]

EU, 성분 규제 한층 조인다... '옴니버스 IX' 이사회 송부, PFHxA 기준 발효

2026-09-22

EU

COSMETIC

R&D

EU 화장품규정(1223/2009) 부속서 II·III·V 개정안인 '옴니버스 IX'가 9월 21~22일 이사회에 송부됐다. 벤조페논-1,2, 속눈썹·눈썹 세럼용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Basic Brown 16·Basic Blue 99와 최신 CMR 물질을 금지(2027년 2월 1일 적용)하고 CBD(0.19%)·BHA(0.07%)에는 EU 첫 함량 상한을 둔다. 이와 별도로 10월 10일부터는 PFHxA 25ppb 이상 또는 PFHxA 관련 물질 1000ppb 이상이 든 화장품의 EU 출시가 금지됐다.

IEUM의 시각 — 속눈썹 성장 제품과 벤조페논-1 함유 자외선 제품은 지금 처방을 바꿔야 한다. 불소계 원료는 ppb 단위 시험성적서(CoA)를 받아줘야 한다.

출처 [4] [5] [6]

인도네시아 화장품 할랄 의무화 이번 주 시행... '연기 없다', 수입품 세부규정은 아직

2026-10-14

SEA

COSMETIC

R&D·마케팅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은 10월 14일 화장품 할랄 인증 의무화가 10월 18일(일부 공식 문서는 17일) 예정대로 시작된다고 못 박았다. 초기에는 단속보다 계도 중심이다. 9월 9일 발효된 BPJPH 규정 4/2026은 수입품에 대해 원산지에서 선적 전 할랄 검증을 요구하지만 수입품·소상공인 특례는 아직 작성 중이다. 식약처는 9월 18일 BPJPH와 협력 MOU를 맺었으나 상호인정 협정은 아니다.

IEUM의 시각 — 동남아 최대 시장에서 미인증 SKU는 이번 주부터 선적이 막힐 수 있다. 수요가 아니라 인증 소요 기간이 제약이다.

출처 [18] [19] [20] [21]

이달의 스포트라이트

'재생' 마케팅의 심판: PDRN·폴리뉴클레오티드·ECM 스킨부스터

서로 무관해 보이는 여섯 사건이 한 달 만에 카테고리 변곡점을 만든 이유 — 그리고 브랜드·클리닉·투자자가 할 일

무슨 일이 있었나

규제: 10월 13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동종진피 유래 ECM 스킨부스터 (엘앤씨바이오 가공, 휴메딕스 유통)가 의료기기가 아닌 인체조직법 아래 유통되고 클리닉 광고가 AATB·FDA·식약처 '승인'을 내세운다고 문제 삼았다. 식약처장은 해당 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허가된 적이 없고 인체조직법에 광고 규정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최소조작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를 개정하겠다고 답했다. 일주일 전 보건복지부 장관도 ECM 제품은 별도 틀에서 검증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단속: 9월 17일 추석 전 온라인 점검에서 식약처는 308건 가운데 화장품 부당광고 63건을 적발했고, 피부·세포 재생, 안티에이징, 항염 효과를 내세운 PDRN 제품과 '피부과 전용', '보톡스 화장품' 표현을 콕 집어 지목했다. 식약처 자료상 PDRN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은 2023년 7건에서 올 상반기 41건으로 늘었다. 3분기 행정처분 66건 중 51건이 광고업무정지였다.

브랜드 보호: 10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파마리서치가 제기한 PN 제품 '미주란' 가처분을 받아들여 리쥬란과의 혼동 가능성을 인정하고 판매·광고·포장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근거: 프락셔널 니들 RF 직후 폴리뉴클레오티드(리쥬란)를 도포한 반안면 식염수 대조 연구 (n=25, PRS Global Open, 9월 28일)에서 6주차 모공·주름 점수 개선, 경피수분손실 감소, 각질층 수분 2배 증가가 확인됐지만 진피 두께와 탄력은 차이가 없었다. 보조요법 클레임에 한해 근거 등급 A이지만 단일기관 소규모 연구다.

자본: 엘앤씨바이오는 ECM 제품군의 미국 독점 공급계약(2031년까지 최소 6000만달러)을 공시하고 신공장 중심의 1447억원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국감에서 문제 된 바로 그 카테고리에 자본을 넣은 셈이다.

수요: 미국 틱톡숍에서 PDRN을 앞세운 제품은 9월 한 달에만 1070만달러(Charm.io)를 팔았고 NAD⁺·EGF 클레임 제품은 3월 이후 몇 배로 커졌다.

IEUM의 해석

세 갈래 규제가 한 단어로 모인다. '재생'은 한국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 클레임이고, 미국 FDA 기준으로는 의약품 클레임이며, NMPA와 EU에서는 근거가 필요한 효능 클레임이다. 이 카테고리는 화장품과 클리닉 마케팅에 의료 언어를 빌려 커왔는데, 국감·광고 점검·가처분은 재분류, 광고정지, 상표권이라는 모든 지렛대가 같은 달에 당겨졌음을 보여준다.

ECM 문제는 안전성 판정이 아니라 분류의 문제다. 국감 기록 어디에도 피해 사례 주장은 없다. 쟁점은 인체조직이라는 지위가 의료기기 수준의 임상 근거와 광고 규정을 우회한다는 점이다. 임상 데이터를 갖추고 의료기기 경로를 거친 PN·HA 부스터의 상대적 위상이 올라가고, 재조합 콜라겐이나 합성 대체재는 의원들이 먼저 입에 올렸다.

근거는 쌓이고 있지만 좁은 클레임에 한해서다. 리쥬란 보조요법 연구가 뒷받침하는 것은 '에너지 시술 후 장벽 회복이 빨라진다'이지 '피부가 재생된다'가 아니다. 클레임을 그 해상도로 맞추는 브랜드는 문구를 지키고, 화장품 라벨에 '세포 재생'을 남겨두는 브랜드는 처분을 계속 받을 것으로 본다.

미국에서는 수요가 컴플라이언스를 앞질러 달리고 있다. 월 1000만달러짜리 틱톡숍 PDRN 클레임 사이클은 경고서한 한 통이면 꺾인다. FDA의 8월 재생 제품 경고서한과 9월 '컴플라이언스 인증서는 발급하지 않는다'는 안내는 한 묶음으로 읽어야 한다.

무엇을 할 것인가

브랜드·포뮬레이터: PDRN·PN·엑소좀·성장인자·'재생' 표현이 들어간 모든 SKU의 클레임 감사를 실시하고, 근거가 실제로 뒷받침하는 장벽·보습·시술 후 회복 클레임으로 다시 쓰며, 기능성화장품 문구는 심사받은 범위 안에 둘 것.

클리닉·의료기기·주사제 기업: ECM 스킨부스터는 의료기기 수준 요건으로 옮겨갈 것으로 본다. 규정이 바뀌는 시점에 '규정을 지키는 기본 선택지'가 되도록 PN·HA 제품의 임상 패키지를 지금 만들거나 라이선스할 것.

투자자: 2027년 1월 14일 메디톡스-대웅 선고와 식약처 ECM 기준 개정을 다음 분기 국내 주사제 섹터의 두 가지 바이너리 이벤트로 볼 것. 규정이 정해지기 전에 ECM 카테고리 들어간 자본은 규제 베타를 안고 있다.

출처 [7] [8] [9] [10] [11] [12] [13] [14] [15] [16]

02 규제·표시광고 위치

처방이나 광고 문구에 직접 영향을 주는 규제 변화와 단속 동향

EU 옴니버스 IX 한눈에… 무엇이 금지되고, 무엇에 상한이 걸리며, 언제부터인가

2026-09-22

EU

COSMETIC

R&D

이사회 문서(ST 13462/2026)는 부속서 II(금지 성분)에 벤조페논-1(광안정제 위험), 벤조페논-2(유전독성 배제 불가·에스트로겐 활성), 속눈썹·눈썹용 프로스타글란딘 및 유사체(안전 사용조건 미확립), Basic Brown 16·Basic Blue 99, 위임규정 2025/1222로 새로 분류된 CMR 물질 전체를 추가한다. 221번 수는 예외조항은 삭제되고 티메로살·페닐수은계 보존제는 부속서 V에서 빠진다. 부속서 III(제한 성분)에는 CBD 0.19%(THC 2.5ppm 이하), BHA 0.07%(피부 적용에 한함), 치약·구강청결제용 나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개정 한도, 부틸파라벤 별도 항목이 신설된다. CMR 금지는 2027년 2월 1일 적용되며 나머지 항목의 경과기간은 채택 시 확정된다. 업계는 4분기 채택을 점친다.

IEUM의 시각 — 프로스타글란딘 유사체 속눈썹·눈썹 세럼은 EU 시장에서 퇴출되고, CBD는 처방에 쓸 수 있는 기준 수치를 비로소 얻었다.

출처 [4]

PFHxA, 화장품 첫 '강제' 과불화화합물 ppb 기준 발효… 10월 10일부터

2026-10-10

EU

COSMETIC

R&D

EU 규정 2024/2462가 10월 10일부터 화장품에 적용된다. PFHxA 및 그 염 25ppb 이상, 또는 PFHxA 관련 물질 1000ppb 이상 함유 제품은 시장 출시가 금지되며 기존 재고는 소진 판매가 가능하다. PFHxA는 전성분 원료라기보다 불소계 원료의 불순물·분해산물인 경우가 많아 결국 공급사 시험 데이터에 달렸다. 포괄적 PFAS 제한안은 ECHA 사회경제분석위원회(SEAC) 심의 중이며 업계는 연말께 최종 의견을 예상한다.

IEUM의 시각 — 롱래스팅 안료, 워터프루프 선케어, 불소계 피막형성제는 다음 EU 선적 전에 ppb 단위 공급사 CoA가 있어야 한다.

출처 [5] [6]

식약처 단속은 '광고' 중심… 명절 점검 308건, 3분기 처분 66건, AI 가짜 의사 광고 금지 예고

2026-09-17

KOREA

COSMETIC / QUASI-DRUG / DEVICE

마케팅

식약처 추석 전 온라인 점검에서 부당광고·불법판매 308건이 적발됐다. 의료기기 200건, 화장품 63건(의약품 오인 44건, 기능성 오인·심사범위 일탈 8건, 소비자 오인 11건), 의약외품 45건으로 해당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3분기 화장품 행정처분은 66건이었으며 광고업무정지 51건(77%), 판매업무정지 7건, 제조업 등록취소 5건, 제조업무정지 2건 순이다. 10월 13일 국감에서 식약처는 AI 생성 가짜 의사·약사 추천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책임판매업자 광고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2025년 화장품 안전성 보고 분석 결과 유효 보고 1285건 가운데 중대 사례는 없었고 영유아·어린이 제품이 43%를 차지했다.

IEUM의 시각 — 컴플라이언스 예산은 처방 변경이 아니라 표시·광고 검토에 써야 한다. 인플루언서와 AI 아바타 '의사' 콘텐츠가 다음 단속 대상이다.

출처 [10] [12] [7] [60]

중국, NMPA 99호 공고로 '안전기술규범' 개정 대응 부담 완화… 3분기 신원료 등록은 33건으로 반토막

2026-10-09

CHINA

COSMETIC / SPECIAL COSMETIC

R&D

NMPA 99호 공고(9월 30일 서명, 10월 9일 공포)는 화장품안전기술규범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를 정했다. 제한 성분을 용제·충전제로 바꾸거나 함량을 낮출 때는 신규 등록시험 없이 사유 설명과 안전성 평가만으로 가능하고, 효능 재평가는 효능에 영향이 있을 때만 요구된다. 기존 자외선차단·미백·탈모방지 효능시험법으로 등록한 제품은 재시험이 면제된다. 공고 본문에 시행일은 없으며 업계는 2027년 단계 시행을 예상한다(미확인).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CFDI)은 2027년 표준 계획(11월 22일까지)과 기사용 원료 식별정보 갱신(11월 25일까지) 의견 수렴도 시작했다. 3분기 신원료 등록은 2분기 65건에서 33건으로 줄었다. 펩타이드 7건, 모유올리고당(HMO) 2건, 아커만시아 용해물 등이 포함됐고 한국 기업의 등록은 없었다.

IEUM의 시각 — 중국 등록 보유 기업은 지금 새 기준으로 처방을 자가 점검하고 시행 전에 바뀌어야 한다.
등록 파이프라인을 보면 중국 활성원료의 최전선은 펩타이드와 포스트바이오틱스다.

출처 [17] [27] [26]

FDA, OTC 선케어 모노그래프서 성분 첫 삭제… 카이벨라 라벨엔 '적응증 외 사용' 경고

2026-09-15

US

OTC DRUG / RX DRUG

근거 B

R&D

FDA 최종 행정명령 OTC000008로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 M020에서 PABA와 트롤아민살리실레이트가 빠지며 허용 필터는 17종에서 15종으로 줄었다. 2027년 9월 11일 이후 해당 성분 제품은 미승인 신약으로 취급된다. FDA는 시판 제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어 실질 영향보다는 OMUFA 모노그래프 명령이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절차적 신호에 가깝다. 9월 15일에는 카이벨라 (데옥시콜산) 라벨 변경을 승인해 턱밑 외 부위 사용 경고(시력 이상·안면마비 등 129건)와 지속성 결절·종괴(117건, 평균 143일 지속)를 경고·주의사항에 추가했다.

IEUM의 시각 — 선케어 포뮬레이터는 베모트리지놀 등 계류 중인 M020 명령의 진전을 염두에 둬야 한다. 메디스파에는 미승인 '지방분해' 주사에 대한 FDA의 선이 한층 분명해졌다.

출처 [22] [23]

03 원료·과학 브리프

동료심사 논문을 근거 등급으로 정리. A=무작위·반안면 대조 / B=개방형 기기측정 또는 ex vivo+임상 / C=in vitro·동물·기업 자료

국소 우롤리틴 A, 로레알 공저로 동료심사 통과… 미토파지 활성화·눈가 주름 개선

2026-09-30

GLOBAL

COSMETIC

근거 B

R&D·마케팅

다미코(D'Amico) 등 아마젠티스 연구진은 로레알·랑콤 연구자와 함께 장내미생물 유래 포스트바이오틱 우롤리틴 A를 재구성 피부, ex vivo 피부조직, 무작위 위약대조 지원자 시험으로 평가해 아이사이언스 (iScience)에 발표했다. 시험관 수준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호흡과 미토파지 지표가 높고 염증·노화 지표가 줄었으며, 임상에서는 8주차 눈가 주름 깊이 감소와 UVB 홍반 완화가 확인됐다. 인체접포시험 (HRIPT)은 음성이었다. 초록에 피험자 수와 효과 크기가 없고 스폰서 저술이라 등급은 A가 아닌 B다.

IEUM의 시각 — 미토콘드리아 기반 '피부 장수' 성분이 건기식에서 프레스티지 스킨케어로 넘어오고 있다. NAD+·세놀리틱·엑소좀 클레임 패키지의 벤치마크다.

출처 [24]

세라마이드 NP 보습제, 아토피 60명 RCT서 위약과 차이 못 보여

2026-10-13

GLOBAL

COSMETIC

근거 A

R&D

구(Gu) 등 연구진은 중등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60명에게 표준치료에 더해 세라마이드 NP 에몰리언트 또는 위약을 42일간 단일기관 이중맹검으로 적용했다(Skin Pharmacology and Physiology). 수분·경피수분손실(TEWL)·EASI·SCORAD·삶의 질·가려움 모두 양 군에서 좋아졌고 세라마이드 NP군이 수치상 앞섰지만 군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국에서 발표된 동반 RCT(n=75, Skin Research and Technology)에서는 미노사이클린 병용 시 센텔라·세라마이드·판테놀 크림이 주사 홍반과 수분을 더 빨리 개선했다.

IEUM의 시각 — 가장 많이 인용되는 장벽 성분의 위약대조 '무효' 결과는 '임상으로 입증된 장벽 회복' 문구를 심사에서 반박하는 근거가 된다. 입증자료를 세라마이드 NP 하나에 걸면 안 된다.

출처 [25]

PDLLA vs 칼슘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CaHA)… 첫 인체 반안면 조직검사로 작용기전 갈렸다

2026-10-14

GLOBAL

MEDICAL DEVICE

근거 B

R&D

안면거상 환자 3명(뺨 6곳)에게 한쪽은 PDLLA, 반대쪽은 CaHA를 주입하고 3개월 뒤 조직검사·33MHz 초음파·피부 거칠기를 비교한 파일럿 연구가 PRS Global Open에 실렸다. PDLLA는 혈관신생(CD31, 모세혈관 수)과 섬유아세포 활성화, 초기 콜라겐 리모델링이 두드러졌고 CaHA는 엘라스틴 섬유 밀도가 약 13% 높고 CD34 발현이 강하며 초음파상 초기 진피 두께 증가가 컸다. 둘 다 거칠기와 GAIS가 개선됐고 중대 이상반응은 없었다. 다만 n=3이라 효능 판단은 어렵다.

IEUM의 시각 — 아시아 스킨부스터 시장에서 경쟁하는 두 계열의 기전 차이(콜라겐·혈관신생 vs 엘라스틴·전구세포)를 보여준다. 병용 프로토콜 포지셔닝에는 쓸 수 있지만 효능 클레임 근거로는 부족하다.

출처 [28]

수술 흉터 예방에 보툴리눔 독신… 17개 연구 메타분석 "즉시보다 지연 주사가 효과"

2026-09-22

GLOBAL

BIOLOGIC (OFF-LABEL USE)

근거 A

R&D

Aesthetic Surgery Journal에 실린 메타분석은 비교연구 17편(치료 부위 656곳, 참가자 456명)을 통합했다. 보툴리눔 독신 A형은 임상의 종합 흉터점수(SMD -0.86, 낮은 확실성)와 객관적 흉터 너비(SMD -0.92, 중등도 확실성)를 개선했다. 지연 주사가 즉시 주사보다 효과가 컸고(SMD -1.24 vs -0.56) 시기와 부위가 이질성 대부분을 설명했다. 흉부 흉터에서 이득이 가장 컸으며 cm당 4~10단위를 넘겨도 추가 효과는 없었다.

IEUM의 시각 — 미간·광경근 적응증 너머의 '흉터 예방' 라벨 확대 근거가 쌓이고 있다. 독신 기업의 새로운 물량 동인이다.

출처 [59]

p-쿠마르산 올리고머 '생체모방 자외선 필터'... 단위별로 UV 에너지 흘려보낸다(초기 연구)

2026-09-30

EU

COSMETIC (WOULD NEED ANNEX VI LISTING)

근거 C

R&D

돌턴(Dalton) 등 버밍엄·말라가대 연구진은 파라-쿠마르산 삼량체를 초고속 과도흡수 분광법으로 분석해 Physical Chemistry Chemical Physics에 발표했다. 발색단 단위마다 빠른 C=C 이성질화로 자외선 에너지를 독립적으로 소산했고, 올리고머화는 용해도를 낮추면서 분자량을 피부 투과 저감과 연관된 약 500Da 문턱으로 끌어올렸다. 처방이나 SPF 데이터는 아직 없다.

IEUM의 시각 — EU에서 벤조페논-1·2가 금지되고 다른 필터도 심사 중인 지금, 유럽 학계가 내놓는 답은 '천연 유래·500Da 초과·비투과' 필터다.

출처 [29]

04 메디컬 에스테틱 업데이트

독신·필러·스킨부스터·의료기기 — 제품마다 규제 분류를 표기

에브비, E형+A형 독신 '한 주사기' 2상 돌입... 빠르게 듣고 오래 가는 독신 노린다

2026-10-13

US

BIOLOGIC (INVESTIGATIONAL)

R&D

NCT07871513(10월 13일 등록, 10월 7일 개시)은 중등도~중증 상안면 주름 미국 성인 300명을 대상으로 한 무작위 삼중맹검 위약·활성 대조 2상으로 미간 주름부터 시작한다. 트레니보툴리눔독신E와 오나보툴리눔독신A를 함께 재구성한 8개 용량 조합군을 오나보툴리눔독신A 단독군, 위약군과 비교한다. 1차 평가변수는 150일까지의 이상반응과 7일차 연구자 평가 미간 척도 '없음/경미' 비율이며 1차 완료 시점은 2028년 6월이다.

IEUM의 시각 — 속효성 E형 독신과 보톡스를 한 주사기에 담은 첫 등록 임상이다. 닥시파이·렐피데스·국산 액상 독신이 경쟁하던 '발현 속도나 지속 기간이냐'의 구도를 바꿀 수 있다.

출처 [30]

국산 독신·필러 해외 행보... 휴온스 HU-045 제오민 대조 3상, 메디톡스

필러 중국 허가, 제테마 태국 첫 선적

2026-10-13

KOREA / CHINA / SEA

BIOLOGIC / MEDICAL DEVICE

R&D·마케팅

휴온스바이오파마는 미간 주름 환자 390명을 대상으로 HU-045와 제오민을 비교하는 국내 이중맹검 활성대조 3상(NCT07870694)을 등록했다. 20단위 투여, 1차 평가변수는 4주차 연구자 평가 반응을, 1차 완료는 2027년 5월이다. 통상의 보톡스 대조가 아니라 복합단백질을 뺀 '순수 독신'을 기준으로 삼은 점이 눈에 띈다. 메디톡스는 HA 필러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중국명 필룩스)의 NMPA 허가를 받아 4분기 현지 파트너를 통해 출시한다. 발표는 임상 데이터가 아닌 제조 특성을 근거로 든다. 제테마는 '제테마 더 독신 100U' 첫 물량을 태국에 선적했다. 보도상 5년 3200만달러 공급계약으로 첫 해외 독신 시장이다.

IEUM의 시각 — 차세대 국산 독신은 메르츠가 쥔 '순수 독신' 시장을 겨냥하고, 국산 필러는 중국 허가를 잇는 반면 독신은 여전히 대기 중이다. 태국이 아세안 진입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출처 [31] [32] [33]

갈더마 레스틸렌 근거 '차곡차곡'… 데콜테 RCT, 턱선 24개월 지속, 전 라인 EU MDR 인증

2026-10-09

US / EU

MEDICAL DEVICE

근거 A

R&D·마케팅

Dermatologic Surgery에 두 편이 실렸다. 레스틸렌 스킨부스터(SB-NASHA)의 데콜테 주름 미국 다기관 무작위 평가자맹검 무치료 대조시험(n=192, 3:1)은 12주 반응률 73.6% 대 18.8%, 24주 86.9% 대 34.9%, 32주 80.8% 대 40.9%(모두 $p<0.001$)로 1차 평가변수를 충족했고 관련 이상반응은 경증~중등도였다. 고탄성 HASHA 겔의 턱선 24개월 RCT(n=168 vs 68)는 3개월 반응률 85.1% 대 14.3%, 재시술 없이 24개월 69.0% 유지를 보였다. 갈더마는 레스틸렌 전 라인의 EU MDR 인증, 턱 보형용 레스틸렌 셰이프의 EU 승인, 재활용 가능한 블리스터 프리 시린지도 함께 발표했다.

IEUM의 시각 — 허가임상급 '얼굴 밖 피부결' 데이터는 국산 PN·스킨부스터가 해외에서 오프라벨로만 다루던 적응증을 연다. 부속서 XVI 규제가 중소 필러사를 압박하는 가운데 전 라인 MDR 인증은 해자다.

출처 [34] [35] [36]

메르츠, 미국 벨로테로 라인 완성… FDA 승인 2종 10·12월 출시, 입술 허가임상 논문 게재

2026-10-14

US

MEDICAL DEVICE (PMA)

근거 A

R&D·마케팅

메르츠 에스테틱스는 중안면 볼륨 결손용 벨로테로 볼륨(+)과 입술 볼륨용 벨로테로 인텐스(+)의 FDA 승인을 발표했다. 미국 출시는 각각 10월 14일, 12월 1일이다. 인텐스(+) 허가임상(Aesthetic Surgery Journal 10월호)은 레스틸렌 실크와 3:1 무작위 비교에서 8주차 입술볼륨 척도 반응률 91.1%(95% 신뢰구간 85.6~95.1)로 비열등성을 입증했고, 사후분석에서 반응자의 51.1%가 48주까지 유지됐으며 중대 관련 이상반응은 없었다.

IEUM의 시각 — 필러 수요가 주춤한 미국에서 메르츠가 최대 물량 적응증 두 곳에 주비덤·레스틸렌·RHA·이볼리스와 맞붙을 완전한 HA 라인업을 갖췄다. 4분기 파트너 프로그램과 가격 경쟁이 예상된다.

출처 [37] [38]

'오젠폍 페이스' 아니라 '체중감량 페이스'... 근거는 쌓였지만 치료 데이터는 여전히 비대조

2026-10-14

GLOBAL

N/A

근거 C

마케팅

한 주에 리뷰 세 편이 같은 결론에 닿았다. Aesthetic Surgery Journal 리뷰(중양대)는 46편을 분석해 20명의 연속 영상에서 중안면 부피가 중앙값 9%(10kg 감량당 약 7%) 줄었음을 확인하고, 변화는 약물 고유 효과가 아니라 원래 골격 위에서 일어나는 체중감량에 따른 수축이라고 결론지었다. Aesthetic Plastic Surgery의 PROSPERO 등록 체계적 문헌고찰은 중재(바이오스티뮬레이터·필러·양극 RF·국소제) 연구가 비대조 4편(98명)뿐이고 검증된 치료 알고리즘이 없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앨러간 에스테틱스는 체중감량 약물 사용자에게 스킨메디카 루틴과 다이아몬드글로우를 적용한 소규모 개방형 스폰서 연구(n=9, n=11)를 발표해 2주차부터 결·크레이프 개선을 보고했지만 대조군은 없었다.

IEUM의 시각 — 브랜드는 약물 이름을 앞세운 프레이밍을 버리고 '감량 중 볼륨 보존·피부결' 클레임으로 가야 한다. 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제대로 설계된 바이오스티뮬레이터·스킨부스터 RCT는 아직 빈자리다.

출처 [39] [40] [41]

05 달·자본·기업

공개된 범위에서 거래 구조를 분해. 별도 표기가 없는 배수는 IEUM 추산

갈더마-ZO 스킨헬스: EV 15억달러, 매출 4.5배... 미국 병원 채널 점유율 19%로

2026-10-14

US/GLOBAL

COSMETIC

R&D·마케팅

거래 구조는 지분 100% 전액 현금이며 보유 현금과 은행 차입으로 조달(차입 규모 비공개), 언아웃·마일스톤 공개는 없다. ZO의 최근 12개월 순매출 약 3억3000만달러 기준 EV/매출은 약 4.5배로, 지난 7월 브리지포인트의 오바지(Obagi) 인수(보도상 약 2.8배)와 대비된다. 업계지가 인용한 클라인(Kline) 추정으로는 갈더마의 미국 병원 전용 스킨케어 합산 점유율이 12.7%에서 약 19%로 올라선다. 갈더마는 앞으로는 소규모 인수(택인)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거래 종결은 4분기 또는 내년 초다.

IEUM의 시각 — 병원 채널 코스메슈티컬 자산의 밸류에이션 기준이 레인지 상단으로 올라갔다. 미국 피부과 채널에서 실적을 내는 국내 더마 브랜드는 이제 뚜렷한 전략적 인수자군(갈더마·애브비·메르츠·이볼루스)과 가격 기준을 갖게 됐다.

맥쿼리, 화성코스메틱·나우코스 지분 100% 약 3000억원에 인수

2026-09-18

KOREA

COSMETIC (ODM)

R&D·마케팅

맥쿼리자산운용은 8월 한국투자PE·에코프로 컨소시엄과 유럽 전략적 투자자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색조 ODM 화성코스메틱(아팔마캐피탈 보유 70%에 창업자 지분 약 30% 포함)과 기초·베이스 ODM 나우코스(100%)를 합산 약 3000억원에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보도된 2025년 실적은 화성코스메틱 매출 약 1107억원·EBITDA 약 235억원, 나우코스 매출 약 695억원이다. 합산 매출 약 1.7배, EBITDA 10배 초반이라는 배수는 IEUM 추산이며 회사별 배분과 종결일은 공개되지 않았다.

IEUM의 시각 — 중견 국내 ODM을 글로벌 PE가 통째로 사들인 첫 대형 사례다. 콜마·코스맥스 뒤에 늘어선 롱테일 ODM에 세컨더리 엑시트 선례가 생겼고, 재무적 투자자가 K-뷰티 제조를 두 자릿수 EBITDA 배수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출처 [42]

아모레퍼시픽, UCSF 스펀아웃 주네비티에 투자… siRNA 'RESET' 플랫폼 화장품 분야 라이선스

2026-09-29

KOREA / US

COSMETIC (TARGET)

R&D

아모레퍼시픽 벤처스가 샌프란시스코의 주네비티(Junevity, 2023년 설립)에 비공개 전략 투자를 하고, 인간 오믹스와 머신러닝으로 전사인자 표적을 고른 뒤 siRNA로 억제하는 RESET 플랫폼의 화장품 응용 라이선스를 별도로 체결했다. 올해 1월 PNAS에 실린 세포노화 지표 역전 논문이 바탕이다. 양사는 피부 경로를 공동 발굴·검증하고, 화장품 개발은 아모레퍼시픽이, 치료제 권리는 주네비티가 맡는다. 금액·독점성·로열티는 비공개다.

IEUM의 시각 — 국내 대기업이 '피부 장수' 활성원료를 원료사가 아닌 바이오텍에서 조달하고 있다. 벤처 지분 투자에 분야 한정 라이선스를 얻는 구조는 포물레이터가 학계 스펀아웃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템플릿이다.

출처 [43]

국내 자본시장: 진코스텍 공모가 상단 확정, 국민연금 아모레퍼시픽 지분 10% 돌파, 엘앤씨바이오 1447억원 유상증자

2026-10-15

KOREA

N/A

투자

하이드로겔 마스크·패치 ODM 진코스텍은 공모가를 밴드 상단인 2만3500원으로 확정(기관 경쟁률 약 1098대 1)하고 10월 15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공모자금 약 200억원은 2027년 4월까지 생산능력을 약 40% 늘리는 3공장에 쓰인다(상반기 매출 310억원, 33.5% 증가). 국민연금은 8~9월 매수로 아모레퍼시픽 지분을 8.42%에서 10.49%로 늘렸고 코스맥스 12.9%, 한국콜마 12.1%

를 보유 중이다. 엘앤씨바이오는 ECM 제품군의 미국 독점 공급계약(2031년까지 최소 6000만달러)과 함께 신공장 투자 중심의 1447억원 유상증자(370만주, 주당 3만9100원, 11월 4일 상장)를 단행했다.

IEUM의 시각 —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국내 기관 자금이 ODM·브랜드 수출주로 옮겨가고 있다. 공모시장은 여전히 '플가동' K-뷰티 생산능력에 프리미엄을 준다.

출처 [44] [45] [15]

기업 위치: 메디톡스-대웅 선고일 확정, 릴리 에스테틱 BD 채용, EU 김벌리클라크-켄뷰 승인, 이볼루스 탈모 주사제 옵션

2026-10-13

GLOBAL

MIXED

투자

서울고등법원은 나보타 군주를 둘러싼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영업비밀 침해 항소심 선고일을 2027년 1월 14일로 지정했다. 메디톡스는 청구액을 5001억원으로 늘렸고 1심의 군주 인도·판매금지 명령은 집행정지 상태다(나보타 2025년 매출 2289억원). 일라이 릴리는 피부 노화·체형 교정·모발 생물학을 다루는 에스테틱 외부혁신 디렉터급 채용공고를 냈고, 국내 언론은 릴리 BD팀이 국내 에스테틱 기업들과 접촉했다고 전했다(기업명 비공개·미확인). EU 집행위원회는 여성위생용품 매각을 조건으로 김벌리클라크의 켄뷰 인수를 승인했으며 스킨헬스 관련 조건은 없어 뉴트로지나·아비노는 그대로 4분기 종결을 앞둔다. 이볼루스는 서방형 모발 재생 주사제에 150만달러 옵션 수수료를 지불했으며 단계별 추가 지급과 100% 인수 권리를 갖는다.

IEUM의 시각 — GLP-1 선두 기업이 에스테틱 BD를 공식화한 것은 '비만에서 에스테틱으로' 인접성이 검증됐다는 의미다. 1월 선고는 대웅·이볼루스·국산 특산 수출 점유율에 바이너리 이벤트다.

출처 [46] [47] [48] [49]

06 시장·채널 시그널

물량이 어디로 이동하는가

수출 구성 변화: 미국 41% 증가, 유럽 최고 성장, 중국 정체, 색조 역성장

2026-10-02

KOREA

COSMETIC

마케팅

식약처 9개월 누계 111억달러 가운데 보도 요약 기준으로 미국 23억5000만달러(40.6% 증가), 중국 15억8000만달러(0.4% 증가, 비중 2022년 46.7%→14.2%), 일본 8억8900만달러(8.6% 증가), 영국 4억4300만달러(179% 증가), 네덜란드 3억6900만달러(293% 증가), 캐나다 2억8500만달러(124% 증가)였다. 기초화장품 87억2000만달러(45.1% 증가), 인체세정용 5억6000만달러(30.1% 증가), 색조 11억1000만달러(3.6% 감소). 산업통상부 월간 자료로는 9월 15억600만달러(31.4% 증가)로 11개월 연속 증가했다.

IEUM의 시각 — EU·영국이 새 성장 전선이다. CPNP·PPWR·옴니버스 대응이 ODM과 브랜드의 우선순위에서 올라가야 한다. 중국은 성장 기여 면에서 사실상 반올림 오차다.

출처 [2] [3] [50]

틱톡숍 미국 뷰티, 분기 10억달러 문턱서 정체… 남은 성장은 PDRN·NAD+·EGF 클레임이 끌어

2026-10-13

US

COSMETIC

마케팅

서드파티 트래커 참(Charm.io) 집계(뷰티인디펜던트 인용)로 3분기 틱톡숍 미국 뷰티 매출은 9억9290만달러다. 전년 동기 대비 39% 늘었지만 1·2분기 96%, 82% 성장에서 전분기 대비 1.3% 증가로 급격히 꺾였다. 최근 12개월 뷰티 매출은 39억1000만달러. PDRN을 내세운 제품은 9월 한 달 1070만달러, NAD+ 제품은 3월 이후 773% 늘어난 560만달러, EGF 제품은 3600% 이상 늘어난 490만달러를 기록했다. 메디큐브는 5710만달러로 1위를 지켰지만 전분기 대비 9% 줄었고 닥터멜라신은 20% 줄었다. 수치는 플랫폼 공식 자료가 아닌 추정치다.

IEUM의 시각 — K-뷰티 선두 브랜드의 전분기 대비 감소는 틱톡 채널이 더는 '공짜 성장'이 아니라는 신호다. 지금 채널을 떠받치는 성분 클레임 사이클은 FDA 의약품 클레임 단속에 가장 취약하다.

출처 [16]

올리브영 'K-뷰티 에디트', 동남아·홍콩 세포라 48개점 입점… 미국 매장 일매출 두 배

2026-10-12

SEA / US

N/A (CHANNEL)

마케팅

CJ올리브영은 세포라와의 협업을 말레이시아 18곳, 태국 13곳, 싱가포르 9곳, 홍콩 8곳 등 48개 매장과 온라인으로 넓혔다. 시장별 12~17개 브랜드, 최대 120개 SKU를 고온다습·고자외선 환경에 맞춰 꾸렸다. 8월 미국 세포라 580개 매장에 입점한 에디트는 참여 브랜드의 9월 하순 일평균 매출이 입점 첫 달의 두 배 수준으로 집계됐다. 2027년 로드맵에는 캐나다·호주·영국·중동이 올랐다. 국내에서는 올리브영이 부산에 900평 규모 플래그십을 열었고 무신사 뷰티 홍대점은 개점 사흘 만에 2억5000만원어치를 팔았다.

IEUM의 시각 — 올리브영이 인디 K-뷰티의 사실상 '수출 큐레이터'가 되고 있다. 에디트 입점 자체가 이제 BD 목표다.

출처 [51] [52]

4분기 이벤트 캘린더: 아마존 프라임 빅딜데이즈 99억달러… K-뷰티는 '기본 품목', 광군제는 역대 가장 빨리 개막

2026-10-15

US / CHINA

COSMETIC

마케팅

어도비 집계로 아마존 10월 6~7일 행사 기간 미국 온라인 소비는 98억6000만달러(8.5% 증가, 모바일 52%)였다. 아마존이 직접 내세운 뷰티 딜에는 라로슈포제·크리니크와 함께 라네즈·닥터자르트·이니스프리·메디큐브가 올랐지만 뷰티 카테고리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티몰과 더우인이 10월 15일(징둥 12일) 광군제를 열어 약 30일로 짧아진 일정과 10월 20일 단일 본판매를 운영한다. 첫 시간 라이브 커머스 보도에서는 자국 브랜드 프로야가 앞섰고 기간 내 뷰티 순위나 한국 브랜드 수치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IEUM의 시각 — 10월은 아마존에서 K-뷰티 4분기 재고를 터는 시점이 됐다. 광군제 첫 뷰티 순위는 다음 호 수집 기간에 잡힌다.

출처 [53] [54] [55]

지보단, 향료는 호황인데 액티브 뷰티는 2.5% 역성장… EU 활성원료 수요 가늠할 유일한 공개 지표

2026-10-13

EU

N/A

R&D·마케팅

지보단의 9개월 매출은 58억9100만스위스프랑(유사 기준 5.2% 증가)이었다. 향료&뷰티 부문은 고급 향수(15.3% 증가)에 힘입어 8.8% 늘어난 31억5000만프랑을 기록했지만 향료 원료&액티브 뷰티 라인은 지난해 1.5% 증가에서 2.5% 감소로 돌아섰다. 그룹 3분기 성장률은 13.5%로 가속됐다. 액티브 뷰티에 대한 별도 설명은 없었다.

IEUM의 시각 — 향료는 호황, 특수 활성원료는 부진이다. 한국·아시아 활성원료 공급사에는 바이어 우위 시장이자 EU 포뮬레이터들의 재고 조정 신호다.

출처 [56]

07 마케팅 플레이북

이달의 근거로 '할 수 있는 말'과 '해서는 안 되는 말'

규제당국이 손대기 전에 '재생'부터 고쳐 써라

KOREA / US

COSMETIC

마케팅

국내 단속은 PDRN의 재생·안티에이징·항염 표현과 '병원 전용'·'보톡스' 명칭을 꼭 집었고, 미국 틱톡숍에서는 PDRN·NAD+·EGF 클레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금 있는 근거는 장벽 회복, 보습, 시술 후 진정처럼 훨씬 좁은 표현만 뒷받침한다. 실행 항목은 다섯 가지다. 모든 클레임을 연구와 평가변수에 1대 1로 연결할 것, 기전 단어(재생·세포 회복·콜라겐 자극)를 데이터가 보여주는 결과 단어(수분·TEWL·매끈함)로 바꿀 것, 기능성화장품 문구는 식약처 심사범위 안에 둘 것, 공개·입증되지 않은 의사·클리닉 추천은 지울 것, AI로 만든 '의사' 아바타는 국내에서 금지 대상으로 간주할 것.

출처 [10] [12] [16] [14]

'오젠폍 페이스' 대신 '체중감량 중 피부'를 말하라

GLOBAL

N/A

마케팅

문헌은 이제 얼굴 변화가 약물 효과가 아니라 원래 골격 위에서 일어나는 체중감량 수축이며, 치료 근거는 비대조라고 말한다. 약물 이름을 앞세운 프레이밍은 '기전이 틀렸다'는 지적과 미국에서의 의약품 클레임 심사를 동시에 부른다. 살아남는 포지셔닝은 급격한 감량 중 볼륨 보존, 피부결·탄력 유지이며 '전후' 비교는 약물이 아니라 감량 시점에 묶어야 한다. 비어 있는 자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체중을 줄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조 연구(바이오스티뮬레이터·스킨부스터·국소 펩타이드 루틴)다.

출처 [39] [40] [41]

'갱년기 피부'가 카테고리로 선점되는 중... 치료 언어 말고 에스트로겐 프리 원료로 들어가라

UK / US / GLOBAL

COSMETIC

근거 C

마케팅

갈더마가 영국·미국·브라질·중국 여성 5090명을 조사한 결과 56%는 갱년기 피부 변화를 일반 노화로 여겼고, 70%는 이 때문에 안티에이징 제품을 샀으며, 62%는 정보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갈더마는 주사제 임상에 갱년기 여부를 표준 변수로 넣고, 미발표 순서 비교 시험(스킨부스터 선행 vs 바이오스티뮬레이터 선행)을 보유 데이터로 인용했다. 코스메슈티컬에는 세라마이드·펩타이드·폴리뉴클레오티드계 보습 원료로 풀 수 있는 장벽·건조·탄력 저하라는 미충족 니즈를 가진 생애주기 고객이 기회다. 함정은 갱년기를 '치료'한다는 뉘앙스다. 영국 광고 규정은 이를 의약품 클레임으로 본다.

출처 [57]

'피부 장수' 문구, 이달의 근거가 실제로 허용하는 범위

GLOBAL

COSMETIC

근거 B

R&D·마케팅

EADV 2026에서 세포노화와 피부취약증(dermatoporosis)이 더모코스메틱 주류 주제로 올라섰고, 우롤리틴 A는 미토파지·주름 데이터로 동료심사를 통과했으며, 아모레퍼시픽은 전사인자 플랫폼을 라이선스했다. 방어 가능한 카피는 측정된 평가변수를 그대로 따른다. '재구성 피부에서 미토콘드리아 지표 개선'은 실험실 클레임, '위약 대비 8주차 눈가 주름 깊이 감소'는 임상 클레임, '세포 노화를 되돌린다'는 어느 쪽도 아니다. 브랜드는 장수 포지셔닝에 히어로 SKU당 위약대조 기기측정 연구 하나를 짝지어야 한다. 카테고리 선두 기업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기준이다.

출처 [58] [24] [43]

IEUM 코멘터리

Prepared by IEUM Value Creator · 이달에 대한 IEUM의 시각

한 줄 요약

자본은 병의원 채널 스킨케어에 웃돈을 얹고 있고(갈더마-ZO 약 4.5배), 세 대륙의 규제당국은 라벨 위 '재생'과 '활성'의 뜻을 좁히고 있으며, 한국의 수출 성장은 '미국향 기초화장품' 이야기가 됐고 다음 구간은 유럽이다.

권고

- 브랜드·포뮬레이터 — 긴급: PDRN·PN·엑소좀·성장인자 SKU 클레임 감사(국내 단속, 미국 틱톡 노출), 다음 선적 전 옴니버스 IX·PFHxA 기준 EU 처방 점검, 동남아향 전 SKU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상태 확인.
- 메디컬 에스테틱 — 적극: 식약처 ECM 기준 개정에 앞서 스킨부스터의 의료기기 수준 임상 패키지 준비, 차세대 특신은 '순수 특신' 시장과 E형 발현 속도 이슈에 맞춰 포지셔닝, 1월 14일 메디톡스-대웅 선고 추적.
- 투자자·기업개발 — 적극: 갈더마-ZO와 맥쿼리-화성/나우코스를 각각 병의원 채널 브랜드와 중견 ODM의 새 비교 기준으로 활용, 릴리의 에스테틱 BD 조직 구축을 국내 주사제·체형교정 개발사에 대한 인바운드 수요 신호로 해석.
- 마케팅 — 관망: '체중감량 페이스', '갱년기 피부', '피부 장수'는 이번 분기 대기업들이 설정하는 세 가지 카테고리 프레임이다. 프레임을 두고 다투기보다 지금 카피를 측정된 평가변수에 맞출 것.

다음 단계와 11월호 워치리스트

식약처 ECM·최소조작 기준 초안, FDA의 PDRN·엑소좀 스킨케어 경고서한, FDA 11월 향료 알레르겐 표시·포름알데히드 규칙 제안, 옴니버스 IX 채택, ECHA SEAC 포괄 PFAS 의견, 인도네시아 수입품 할랄 특례, 광군제 첫 뷰티 순위(10월 21일째부터), 국내 3분기 실적(휴젤·메디톡스·클래시스·코스맥스·한국콜마·아모레퍼시픽), ASDS(11월 5~8일)·인코스메틱스 아시아(11월 3~5일) 데이터, 렐피데스 FDA 심사 결과.

확인되지 않은 사항

식약처 보도자료 내 국가별 증가율은 언론 보도 기준. 맥쿼리 ODM 거래는 비상장 대상이라 1차 공시가 없음. NMPA 99호 시행일과 인도네시아 10월 17일·18일 시작일은 출처 간 불일치. 우롤리틴 A 임상 피험자 수는 초록에 없음. 기간 내 FDA 화장품 경고서한은 확인되지 않음(FDA 목록 최종 갱신 8월 26일).

면책 및 출처

본 뉴스레터는 (주)이음밸류크리에이터가 공개된 자료만을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고객 자문과 관련된 정보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업계 종사자를 위한 일반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규제·법률·의료·투자 등 어떠한 전문적 자문도 아닙니다. 근거 등급은 연구 설계를 반영한 것으로 임상적 보증이 아니며, 규제 분류는 인용한 시장 기준으로 다른 시장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수치는 인용 출처가 해당 일자에 보고한 값이며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주)이음밸류크리에이터는 본 문서에 근거한 의사결정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기업명과 제품명은 각 소유자의 자산입니다.

1. Galderma — Agreement to acquire ZO Skin Health (14 Oct 2026)
2. MFDS — Jan-Sep 2026 cosmetics export release, via KDI policy portal (2 Oct 2026)
3. Seoul Economic Daily — K-beauty exports hit \$11.1bn in nine months (2 Oct 2026)
4. Council of the EU — Draft Commission Regulation amending Annexes II, III, V of Reg. 1223/2009 (ST 13462/2026, 21-22 Sep 2026)
5. EUR-Lex — Regulation (EU) 2024/2462 (PFHxA restriction)
6. Personal Care Insights — EU PFHxA limits apply to cosmetics (9 Oct 2026)
7. Pharmnews — 식약처 국정감사: 인체조직 ECM 스킨부스터 (13 Oct 2026)
8. K-Health — 국감 ECM 스킨부스터 쟁점 (13 Oct 2026)
9. Pharmnews — 복지부 국정감사: ECM 제품 검증 필요 (7 Oct 2026)
10. Kormedi — 식약처 추석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308건 (17 Sep 2026)
11. Hankyung — PDRN 화장품 허위광고 적발 추이 (Jul 2026, background)
12. Cosinkorea — 3분기 화장품 행정처분 66건 (6 Oct 2026)
13. Hankyung — 파마리서치, '미주란' 가처분 인용 (8 Oct 2026)
14. PRS Global Open — Polynucleotide after fractional needle RF, split-face (epub 28 Sep 2026)
15. Dailypharm — 엘앤씨바이오 미국 공급계약·유상증자 (13 Oct 2026)
16. Beauty Independent — TikTok Shop Q3 2026 beauty sales (Charm.io data, 13 Oct 2026)
17. NIDC — NMPA Announcement No. 99 (2026) on the revised Cosmetic Safety Technical Specifications (9 Oct 2026)
18. REACH24H — Global cosmetics regulatory updates, September 2026
19. BPOM — Kewajiban halal kosmetik Oktober 2026
20. CNC News — 식약처-BPJPH 할랄 협력 MOU (Sep 2026)
21. Radar Tasik — BPJPH: wajib halal kosmetik mulai 18 Oktober 2026 (14 Oct 2026)
22. ArentFox Schiff — FDA removes PABA and trolamine salicylate from OTC sunscreen monograph
23. FDA — Drug Safety Communication: Kybella labeling update (15 Sep 2026)
24. iScience — Topical urolithin A: mitophagy and periorbital wrinkles (D'Amico et al., epub 30 Sep 2026)
25. Skin Pharmacol Physiol — Ceramide NP moisturiser RCT in adult atopic dermatitis (Gu et al., 13 Oct 2026)
26. 绿翊合规 — 2026 Q3 China new cosmetic ingredient filings roundup (30 Sep 2026)
27. 中国食品药品网 — September 2026 cosmetics regulatory roundup (15 Oct 2026)
28. PRS Global Open — PDLLA vs CaHA split-face histology (epub 14 Oct 2026)
29. Phys Chem Chem Phys — Oligomerised p-coumaric acid UV filter (Dalton et al., 30 Sep 2026)
30. ClinicalTrials.gov — NCT07871513 (AbbVie, BoNT-E + onabotulinumtoxinA, Phase 2)
31. ClinicalTrials.gov — NCT07870694 (Huons Biopharma, HU-045 vs Xeomin, Phase 3)
32. Newspim — 메디톡스 뉴라미스 볼륨 리도카인 중국 NMPA 허가 (28 Sep 2026)
33. Newspim — 제테마, 태국 첫 독신 수출 선적 (14 Oct 2026)
34. Dermatologic Surgery — SB-NASHA for décolletage wrinkles, RCT (epub 9 Oct 2026)
35. Dermatologic Surgery — HASHA for jawline definition, 24-month RCT (epub 2 Oct 2026)
36. Galderma — 30 years of Restylane: EU MDR certification, Restylane Shaype chin approval (6 Oct 2026)
37. Business Wire — Merz Aesthetics: FDA approval of BELOTERO VOLUME (+) and INTENSE (+) (14 Sep 2026)
38. Aesthetic Surgery Journal — Belotero Intense (+) vs Restylane Silk for lip augmentation, RCT (Oct 2026)
39. Aesthetic Surgery Journal — Facial changes after GLP-1-associated weight loss, review (14 Oct 2026)
40. Aesthetic Plastic Surgery — Interventions for facial changes after GLP-1 weight loss, systematic review (12 Oct 2026)
41. AbbVie — Allergan Aesthetics skin-quality data in patients on weight-loss medications (17 Sep 2026)
42. Seoul Economic Daily (Signal) — 맥쿼리, 화성코스메틱·나우코스 인수 SPA (Sep 2026)
43. Business Wire — Amorepacific and Junevity partner on skin rejuvenation (29 Sep 2026)
44. SBS Biz — 진코스텍 코스닥 이전상장 공모 결과 (Oct 2026)
45. CEO Score Daily — 국민연금, 아모레퍼시픽 지분 10% 돌파 (15 Oct 2026)
46. Edaily — Medytox v. Daewoong appeal verdict set for 14 Jan 2027 (13 Oct 2026)
47. Korea Economic Daily — 릴리, 에스테틱 외부혁신 책임자 채용 (5 Oct 2026)
48. MLex — EU conditionally clears Kimberly-Clark/Kenvue (13 Oct 2026)

49. Business Wire (via FinancialContent) — Evolus option agreement, injectable hair-restoration program (14 Oct 2026)
50. Cosmorning — 9월 화장품 수출 15억 달러 돌파 (산업통상부 자료, Oct 2026)
51. G-Enews — 올리브영 K뷰티 에디트, 동남아 세포라 48개 매장 입점 (12 Oct 2026)
52. FN Times — 올리브영 세포라 미국 성과·2027 로드맵 (15 Oct 2026)
53. Digital Commerce 360 — Prime Big Deal Days 2026 results (Adobe data, 8 Oct 2026)
54. About Amazon — Prime Big Deal Days 2026 featured deals (Sep 2026)
55. FX168 — 2026 天猫双11 时间表 (15 Oct 2026)
56. Givaudan — 2026 nine-month sales (13 Oct 2026)
57. Galderma — The menopausal skin misread: survey and sequencing data (13 Oct 2026)
58. Galderma — EADV 2026 scientific programme (23 Sep 2026)
59. Aesthetic Surgery Journal — BoNT-A for post-surgical scar prevention, meta-analysis (epub 22 Sep 2026)
60. Cosmorning — 식약처 2025년 화장품 안전성 보고 분석 (Oct 2026)
61. Bosa — 보툴리눔 독신 국가핵심기술 지정 해제 요구 세미나 (15 Oct 2026)
62. ClinicalTrials.gov — NCT07855224 (CGBio Facetem S, nasolabial folds)
63. Fortune — Blackstone exploring ZO Skin Health sale at ~\$2bn (19 Sep 2026)
64. Personal Care Insights — Galderma-ZO: Kline physician-dispensed share estimate (Oct 2026)

IEUM VALUE CREATOR

제2호 · 2026년 10월호

(주)이음밸류크리에이터는 에스테틱·코스메슈티컬·바이오제약 기업에 크로스보더 BD&라이선싱, 경쟁 정보, IR 자문을 제공합니다. jayjay@ieumvc.com · ieumvc.com

© 2026 (주)이음밸류크리에이터. All rights reserved. 수신을 원치 않으면 “unsubscribe”로 회신해 주십시오.